

여순사건 기념공원 후보지 도성마을 등 9곳 검토

여수시, 연구용역 보고회 접근성·역사성 등 분석 국비 지원 건의 등 활동 전개

73년 전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아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 아픔 치유를 위한 기념공원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방향 구상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위한 정부의 파병 명령을 거부하며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7월 20일 사건 발발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령 묘역, 위령탑, 사료관, 위령 공원 등의 위령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선제적 후속 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기념공원 연구용역에 착수해 명칭과 대상 후보지,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6월과 10월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권오봉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유족대

표, 시의원,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건립 후보지에 대한 입지 평가 결과 보고에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사 체험 및 자녀 교육을 위한 공원 조성과 희생자 및 유족 치유 공간, 기록과 추모공간 등을 중심으로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용역사는 '왜 여수에 기념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순사건의 발원지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주요 사적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영호남과 제주를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치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교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된 점을 꼽았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여수 관광에 대한 만족과 기대, 잠재 수요를 확보해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분석됐다.

용역사는 여순사건 기념공원 후보지로 오천 재생산단 일원, 오천 자연공원, 신월동 한화공장, 도성마을, 화양복합단지, 전남동부청사 신청지, 망마공원, 전남대 미집행부지 등 9곳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개발 용이성, 지리적 접근성, 연계성, 역사성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도성마을과 신월동 한화 공장 인근, 전남동부청사 신청지 등을 물망에 올렸다.



지난 22일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최종 용역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며, 성과물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위령사업 추진이 이른 감이 없진 않다는 점과 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피해신고 1년, 진상조사 2년, 보고서 작성에 6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진상조사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시는 유가족 대다수가 고통인 점을 감안한 한 번이라도 더 기념공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공원의 준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총체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며 "특히 사건의 발생지이자, 피해지역 희생자가 가장 많은 여수시에 하루빨리 기념공원을 조성해 모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드림스타트사업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고흥군 드림스타트가 '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평가는 82개 농산어촌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조직구성·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흥군 드림스타트는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열악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연계해 활용한 점, 원거리 아동들을 위해 방학중 집중상담기간 운영,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을 연계한 해피바이라 스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 사업 추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연 6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97가구 299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보육, 건강 분야 7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주낙준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만가든마켓 위탁동의안, 3개월 만에 의회 통과

화훼농가 등 피해 우려 상정 지연 가든마켓 대표 협박성 문자 논란

순천시 출자하고 민간 주주가 참여한 '순천만가든마켓'이 3개월 만에 순천시의회 의회 통과를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순천만가든마켓 위탁동의안이 의원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전체 시의원 24명 가운데 16명 찬성,

8명 기권으로 확인됐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순천시가 1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주주 10억1000만원을 공개 모집해 만든 농업회사 법인이다. 순천시는 지난 9월 시의회에 위탁 운영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허유인 의장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허 의장은 지역 화훼 농가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공청회 개최 등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허 의장이 순천만가든마켓 등 일부 의안을 상임

위에 넘기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감병권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을 예로 들며 "의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그 다음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며 "의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위탁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자 순천만가든마켓 대표가 최근 한 시의원에게 위탁 동의안 처리를 압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어났다.

순천시의회는 당초 21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순천만가든마켓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 간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결국 22일 오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1조3782억원과 안건 54건을 처리했다.

연향뜰 도시개발과 관련한 의견 청취 안건과 회의규칙 개정안 등 의장이 상임위 상정을 하지 않은 안건은 다음 회기 때 다루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순천만가든마켓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가 시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순천시는 가든마켓 대표를 조속히 사임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최우수군 선정

특색 있는 산림행정 돋보여

보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도시 숲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보성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1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지자체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 등 산림 보전 분야 시책 개발, 우수 시책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2018년부터 '1000만 그루 도시 숲을

만든다'는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산책로 조성을 비롯, 산림과 문화자원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선진 산림 행정을 펼쳐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40년 넘게 산속에 묻혀있던 오봉산 구들장 채취지 및 운반 우마차길 발굴 정비와 해평호수정원 십리길 개설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은 오봉산 칼바위 마에 불상과 함께 최근 산림청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읍에 조성된 보성 숲 정원.

곡성군, 다음달 21일까지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접수

곡성군이 다음달 21일까지 20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접수한다.

청년영농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동안 총 3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년차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으로 매월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며 입학 포함,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갖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농업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서류심사, 면접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께 발표된다.

선발된 청년영농인은 136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업 경영장부를 꾸준히 입력해야 한다. 취업을 하거나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